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1월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1월

11월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으로,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글입니다. 11월은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며 감사가 깊어지는 달이자, 수험생과 청년들의 진로, 추워지는 계절 속 이웃의 필요를 더 세심히 살피게 되는 때입니다. 아래 기도문 예시는 교회 형편에 따라 문장을 덜어내거나 덧붙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1월1 감사와 회복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18:1)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일 낮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분주함과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중심에서 우러난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계절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숨결과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하루가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가 메말라 불평이 먼저 나왔던 마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감사의 언어로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면서도 여전히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관계의 상처, 몸의 통증과 마음의 우울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멀게 느껴지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억지로 웃는 믿음’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붙드는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11월의 감사로만 머물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특히 외로움 속에 있는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가정, 마음의 병으로 버거워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세상 소식이 마음을 흔들어도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예배 후의 삶에서도 감사와 순종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회복을 이번 한 달 내내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이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잘 드린 예배’로 끝나지 않고, 한 주의 걸음이 달라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1월2 나라와 교회를 위한 중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역대하 7:14)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겉모습은 바쁘는데 마음은 메마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강단과 가정과 다음 세대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서로를 판단하는 말보다 서로를 살리는 말이 많아지게 하시고, 작은 교회와 개척 교회, 사역자 가정에도 필요한 공급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결단을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곳마다 화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는 회복을, 약자가 외면당한 자리에는 보호의 손길을 세워 주시며, 정책과 제도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전쟁과 재난,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두려움이 커진 시대에, 교회가 공포를 퍼뜨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소문과 자극적인 말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며 이웃의 아픔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세상을 섬기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중보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 가운데 우리부터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1월3 수험생과 다음 세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은혜의 하나님, 11월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시험과 진로, 관계와 정체성의 고민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들을 주님이 아시니, 오늘 예배에서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걱정의 목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수능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주옵소서. 밤을 새우며 버티는 시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 주시고,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과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어떤 성적표 앞에서도 주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취업과 커리어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한 걸음씩 걷게 하옵소서. 비교와 열등감이 마음을 갇아먹지 못하게 하시며,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여 주옵소서. 작은 시작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말과 표정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대와 사랑의 균형을 주옵소서.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소서. 교회가 시험 기간에만 관심을 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소에도 다음 세대를 품고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다음 세대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들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이들이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지 않게 지켜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들의 마음에 쉼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1월4 추수감사와 나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감사하시는 하나님, 11월의 한가운데서 추수감사로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손에 쥔 것보다, 우리 손을 붙드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가 ‘행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뿌린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도움을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잊지만, 주님은 한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풍성함을 누리며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남보다 더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나눔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겨울 난방이 걱정되는 이웃, 병상에 오래 누워 있는 가족,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가정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재정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며, ‘나눔이 줄어듦’이 아니라 ‘나눔이 더해짐’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가 많아지면 원망이 줄고, 감사가 깊어지면 상처를 내려놓는 힘이 생깁니다.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하시고, 미안함을 먼저 말하게 하시며, 화해가 필요한 자리마다 주님이 중재자가 되어 주옵소서. 특히 오해와 거리감이 쌓인 가정과 소그룹에 성령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린 우리가 삶에서도 나눔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 주님의 손길이 이웃에게 닿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1월5 건강과 치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4)

치유의 하나님, 기온이 내려가고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는 11월에도 우리를 지켜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돌봄으로 지친 가족, 마음의 무거움으로 숨이 턱 막히는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주님, 아픈 지체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약과 치료가 효과를 내게 하시고, 의료진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길어져 낙심하는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하루만 더’ 버티게 하는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돌보는 이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간병과 육아와 생계로 쉴 틈 없는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고, 죄책감과 무력감이 마음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필요한 도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랑이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불안과 우울, 공황과 외로움으로 힘겨운 성도에게 안전한 공동체와 적절한 도움의 길을 열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숨을 고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볍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경청과 동행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리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쉼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1월6 대림을 준비하는 소망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사야 9:2)

소망의 하나님, 11월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대림의 계절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서둘러 연말을 향해 달려가지만, 교회는 더 깊이 낮아져 구원의 빛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낮예배가 바쁜 마음을 멈추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둠이 짙어 보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늘이 깊어지고, 뉴스와 현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밀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 땅에 주님의 빛이 다시 비추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말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고백이 더 크게 울리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믿음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더딜 때에도 주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조급함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며, 기다림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대림을 준비하며 삶을 정돈하게 하옵소서. 말과 습관, 소비와 시간 사용을 돌아보게 하시고, 불필요한 분주함을 덜어내게 하옵소서. 상처를 붙잡고 있던 마음은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가 필요한 관계는 주님 안에서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회개가 큰 자유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교회가 성탄을 ‘날짜’로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깊어지고, 찬양이 맑아지고, 말씀의 순종이 삶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11월의 마무리가 12월의 결단으로 이어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소망의 불씨가 되어 한 주를 밝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배 안내와 순서를 확인하며 더 잘 준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